

##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의미적 열린 구조

조 애 래\* · 김 영 인\*\*

장안대학 패션디자인과 강사\*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A Study on Meaning of Open Structure in Clothing Design

Ellie Cho\* · Young-In Kim\*\*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Jangan College\*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5. 11. 15 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concept of open structure to clothing design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various types of clothing which has open structure. The literature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including philosophy, literature, social science, architecture, and fine arts are investigated to define the concept of openness and to analyze it from the perspectives both of the visual and of the meaning of openness.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by future intention, complexity, discontinuity of open structure. By closely examining fashion design after 1980s found in fashion collection publications and designer's websi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openness can be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levels, that is, visual and meaning, secondly, in clothing the concept of open structure is applied to the meaning side by future intention, by complexity and by discontinuity. Open structure through future Intention has new content and interpretation and must have the possibility of intelligence awakening, future guidance and basic contents. Open structure through complexity has secondary function exists concurrent with the shape key example is the smart clothes with the digital functions. It has functions of amusement, supplement and protective, and is future clothes which satisfies with health, welfare, desire of beauty. Open structure with discontinuity is clothes with dramatic changes in system, structures and states. Structure can be changed by silhouette, detail, or fabric, material, or dramatic and practical function as tools in terms of productions and environment.

This study can help to formulate and to integrate the concept of open structure in clothing with various phases and enhance the value of clothes by showing an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openness to the clothing in meaning level.

Key words: open structure(열린구조), future intention(미래지향성), complexity(이중성), discontinuity(불연속성)

## I. 서론

21세기는 기존의 학문 영역 간 복합화와 통합화가 일어나며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 영역들이 창출되고 있다. 복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영역에서도 기존의 복식 개념으로부터 복식의 의미를 확대시켜 나가거나 다른 영역과 복합화되는 복식의 특성을 의미화할 때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복식을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복식의 특성들을 하나의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내어 의미화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하나로 복식의 특성을 ‘열림’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복식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열림의 개념을 정의, 해석하고, 열림의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해석을 복식에 적용하여 열린 구조를 지닌 복식의 특성을 시각적, 내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언어, 철학, 사회학 분야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열림의 개념을 의미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복식에 적용해서 열린 구조를 지닌 복식의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적 사례는 패션 전문서적과 전문 잡지, 커렉션 자료, 디자이너 웹사이트 등에서 복식자료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열림 개념에 의해 분석하였다. 복식의 사례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서양 여성 복식에 한정하였다.

## II. 열림의 개념과 해석

### 1. 열림의 개념 정의

‘열림’(Open)의 사전적 정의에 의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열려있는, 사이가 벌어진, 갈라진, 찢어진,’ 등의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사상·제안·지식 등을 금방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쉬운’,

‘예정에 없는’, ‘움직여지기 쉬운’, ‘~로 통해 있다’ 등의 의미적이고 내용적인 개념이다<sup>1)</sup>.

열린다는 것은 양쪽으로 또는 다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향성이 확장된 상태로 나타난다.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를 말하는 의미적으로 열리는 것은 가치가 한 가지로 한정되지 않고 두 가지나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열림’의 개념을 철학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양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으로 그의 저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1932)』에 의하면, 사회는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로 나누어지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간 사회는 닫힌 사회로 자기 집중과 계급성, 주장의 강권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열린 사회는 동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이며, 한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전체를 감싸는 사회이다<sup>2)</sup>. 베르그송은 열린 도덕과 닫힌 도덕, 열린 영혼과 닫힌 영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열림’ 개념은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것, 자연적 질서보다 더 절대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 동적인 것,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열림에 대한 의미적이고 내용적인 개념과 철학적, 사회학적 개념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목적이나 정해진 기능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명료한 법칙성이 고정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함을 뜻한다. 또한 포용적인 개념으로 복합적 이중적, 다원적이며 따라서 동적인 상태가 되어 대상이 상호 교류되면서 변화하여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가리킨다.

### 2. 열림의 의미적 해석

열림의 개념은 웸베르트 에코에 따르면, 부가적 ‘잉여’ 개념보다 ‘정보’ 개념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building)을 표현할 때 모음 ‘ui’를 빼고 자음 ‘bldg’만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정보는 의해 그려질 것이라는 개연성을 넘어야 하며 오히려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을 줄 때 우리는 정보를 얻는다고 보는 것이다. 예술작품에서도 새로운 내적 법칙으로 새로운 의미를 줄 때, 그리고 새로운 해석

이 가능할 때 열린 작품이 된다<sup>3)</sup>.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정의에 따라 열림의 정보를 주는 새로운 의미를 미래지향성, 이중성, 불연속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1) 열림의 미래지향성

의미를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정보는 시간의 차원을 지니므로 시간과 함께 가치가 감소하거나, 미래의 시간을 반영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많은 카피(copy)를 만들 수 있으므로 양도·전달되어도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정보를 받는 사람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량의 정보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 해석을 위한 코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여기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보 자체가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무엇에 관해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므로 연관된 관계를 찾아 유추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대적 배경과 특정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어떠한 것에 관한 이야기(text)로서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sup>5)</sup>. 복식에서의 정보도 시대 상황과 함께 생겨난 개념과 내용이며, 상황과 연관되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형태화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가치와 법칙을 담고 미래의 시간을 반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열림의 미래지향성은 정보의 통시적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 2) 열림의 이중성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현시대의 정보는 이중성, 복합성에서 잘 나타난다. 이중성은 한가지의 의미나 기능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사용되는 알레고리(allegory)의 특징을 갖는다. 문학에서 알레고리는 헬라어 동사 *allegorein*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allegorein*은 '다른'을 뜻하는 *allos*와 '말하다'를 뜻하는 *agoreuein*이 모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allegorein*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를 유추하며 비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가 또 다른 것을 받아들여 다원적이며 함축적이고 이중적인 가능성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sup>6)</sup>.

이중성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이야기(text)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text)에 의해 중첩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그들이 합체되어 녹아들어 가고, 형태를 삭제하지 않으며 누적과 병렬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중성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항상 보충적인 은유로서 중첩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 깃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적은 형태적이고 기능적인 개념이며, 병렬은 시간적 개념이므로 병렬적 시간 개념은 층 구조처럼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즉 의미적으로 열림의 두 번째 개념은 이중성과 복합성에 의한 열림으로 형태와 함께 이차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열림의 이중성은 동시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 3) 열림의 불연속성

이 개념은 조엘 스미스(Joel M. Smith)가 밝혔듯이, 인문학의 구조에서 여럿의 주체(이야기)가 한 개체(형태) 안에서 불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불연속성에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여 지금까지 연속되지 않은 것을 서로 연결시킬 때, 구조는 움직이게 된다. 즉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능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제시할 때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존의 서로 다른 것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같은 테두리 안에 공존하는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sup>7)</sup>. 그래서 내용면에서 추가되고 확장되어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어떤 성질에서 다른 성질로 확연하게 변화할 때 불연속성이 나타난다<sup>8)</sup>. 철학적으로 불연속성은 물질의 구조뿐 아니라 물질의 운동과 발전에 대하여 적용된다. 변화의 원칙을 실재(實在)의 근본적 기초로 여기는 불연속의 철학<sup>9)</sup>(philosophy of discontinuity)이론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내적 습관의 외적 양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의미가 다른 의미로 전환될 때 필요한 사이 시간은 형태나 기능이 변화하는 움직임의 시간이다. 사이 시간이 들어가 비약적인 변화를 주면 불연속적 구조가 나타나

고 그 변화를 양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불연속성이 한 개체에서 이어진다. 즉 사이 시간이 들어가면서 형태나 목적,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변화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거나 확장되어 의미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열림의 불연속성은 변화하는 데 필요한 사이 시간이 들어가는 개념이다.

### III. 복식의 의미적 열린 구조에 관한 해석

이 연구에서는 열림 개념을 미래지향성, 이중성, 불연속성의 세 가지 의미적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를 복식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이 연관되어 생겨난 미래지향성에 의한 열림은 시대에 따른 아이디어, 개념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의미 내용을 지닌다. 둘째로, 이중성과 복합성에 의한 열림은 형태와 동시에 이중적 기능이 부가되는 복식을 뜻하며, 신기술이 적용되어 가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복식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불연속성에 의한 열림은 하나의 체계, 하나의 형태 또는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비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생기며 형태적, 기능적으로 사이 시간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복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성에 의해 열린 복식은 통시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복식에 대한 해석이며, 이중성은 동시적인 시각으로 해석된 복식이고, 불연속성은 사이시간이 들어가 변화하는 개념에 의해 해석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한 기능에 또 다른 기능이 추가될 때 복식의 기능이 확장되며 의미적 측면에서도 ‘열림’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3차원적인 관점에서 시간 개념이 삽입되어 4차원적인 관점으로 복식을 고찰하면서, 열린 구조 복식의 가치와 역할을 다원적으로 고려하여 확장한다.

#### 1. 미래지향성에 의해 열린 구조

바르트(R. Barthes, 1915-1980)는 최초로 복식을

비언어적인 의사 소통물로 규정했다. 그는 소재(실질), 형태 등이 표현의 측면을 지니면서 상황과 합쳐져 체계 속의 하나의 기호로서 의미를 갖는 삶의 언어로서 복식을 보았다<sup>10)</sup>.

진 해밀턴(Jean Hamilton)에 따르면, 복식은 문화적 소산으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념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측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sup>11)</sup>. 이는 복식의 정보성에 관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복식은 한 시대의 사회·정치·경제·기술의 일면을 표출하면서 특히 인간의 내적 미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12)</sup>.

복식역사학자 콘티니(Contini)는 1977년 그의 저서 『패션의 5000년』을 통해 복식 스타일이 시대적으로 각 시대의 순수 예술과 유대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복식에 나타난 모티프(motif)와 그 시대의 회화나 조각, 기타 미술 작품에 나타난 모티프와의 공통점을 연구했다. 또한 파렌 베(Farrell-Beck)과 페취(Petsch)는 1984년 패션 디자이너 샤넬과 비오네(Vionnet)의 작품세계와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세계를 비교함으로써, 순수 예술에서 추구하는 철학이나 의미는 패션 디자인의 진보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린 복식을 통하여 미래적인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담고 있는 정보성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시대상황과 문화적 또는 예술적 배경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이세이 미야케, 장 폴 고티에,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미래지향성을 고찰하였다.

#### 1) 의상을 움직이는 조각의 차원으로 풀어올린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단순미와 기능성을 강조하던 대량생산체제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과학기술에 지배받는 기능성을 넘어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으로 창작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

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의 방법을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80년대의 디자이너 중 하나인 이세이 미야케는 전통을 재인식하고 동시대적으로 해석하여 의상으로 풀어내며, 형태와 기능이라는 두 요소를 결합시켜 현대 여성의 감성에 적합한, 자유로운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미야케는 착용자의 신체와 감성에 따라 옷의 형태가 자유롭게 결정되도록<sup>13)</sup> 디자인하고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자유롭고 아름다우며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의복이 현대 여성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소재를 연구하여 정방형과 기하학적 형태로 재단하여 주름을 잡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이상적임<sup>14)</sup>을 발견하고 누구나 입을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를 주는 편안한 의복으로 개발하여 '이지케어(easy care)'라는 현대의 생활 조건에 이상적인 의상(Pleats Please)<sup>15)</sup>으로 계속 발전, 변화시키고 있다.

자유로운 형태를 통해 가능성과 유연성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형시켜 연출할 수 있으므로 입는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개성적인 형태를 갖게 하는 그의 의상은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는 몸에 딱 맞는 서양적 의복 구성 대신 평면적인 옷감과 형태에서 출발하지만 인체와 의복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양 전통 의상에 기초한 작업으로 의복의 볼륨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sup>16)</sup> 독특한 형태를 살린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클래식과 전위, 예술과 생산성, 하이테크와 휴먼의 관념을 통합시켜 새롭게 해석하는 그의 관심은 마침내 한 장의 천 APOC(A Piece of Cloth)을 사용하여 개인에 따라 형태를 자유롭게 재단해서 입을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내었다.

## 2) 낯선 가능성을 혼합하여 패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장 폴 고티(Jean Paul Gaultier)

80년대 프랑스 패션에 새로운 루을 가져온 대표

적 디자이너인 고티에는 인습과 규범에서 벗어난 의미를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의상에 표현한다<sup>17)</sup>. 고티에는 성별, 인종, 종교, 각국 문화의 경계선에서, 이전에는 패션에 표현되지 않았던 특성들을 사용하여 파격적인 해학성, 비전통적인 조형미를 갖게 하였고, 전문 패션모델 대신 평범한 '진짜'의 사람들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실험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을 파괴하면서 디자인 부분의 변형과 파괴, 왜곡을 대담하게 하거나, 에로티시즘을 개성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이미지와 목적, 용도가 다른 아이템을 결합하여 부조화스럽다고 인식되던 것들을 새로운 구조로 조화롭게 만드는데, 테일러드 수트 위에 점퍼스커트나 스웨터를, 재킷 위에 브래지어를, 드레시한 의상에 군화를, 드레시한 스커트에 스포츠 셔츠를 매치하는 등의 미스 매치(mismatch)의 미를 발견하도록 구성한다<sup>18)</sup>.

이전에는 당연시 하던 '속옷을 겉옷 안에 입는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속옷의 겉옷화를 패션으로 이끌어낸 고티에는 안과 밖, 정숙과 비정숙, 노출과 은폐에 관한 선입관을 무너뜨렸으며, 소재에서는 비싼 소재와 값싼 소재를,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소재 구성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고티에는 남성복에 스커트를 도입하고, 남성복의 테일러드 재킷과 넥타이, 팬츠 등을 여성복에 도입한 앤드로지너스룩을 발표했다.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여성은, 너무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성에서 탈피하게 되었으며, 남성은 딱딱하고 직선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성(性)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각기 지니는 아름다움을 서로 공유, 교차시켜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sup>19)</sup>.

1985년에 사람들이 조깅과 에어로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고티에는 운동복에도 미스매치 개념을 적용한 액티브 스포츠 웨어라는 장르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패션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두는 고티에는 자유로운 시도를 통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 변화를 읽고 표현해 낼 수 있는 감각으로 다른 요소나 다른 경향의 총합을 시도함으로써, 미적 질서와 조화에 대해 새로운 체험을 주고, 그 의미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고티에의 작품은 네오다다이즘, 네오 로맨티시즘과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 과격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다다이즘 작품이나 평크의 표현과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 3) 철학적 바탕과 개념,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패션에 통합시킨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까지 후세인 샬라얀은 전통적인 테일러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우며 내성적이고 여유 있는 정적 성향의 작품을 발표한다. 철학적 의미<sup>20)</sup>와 미래적이고 정제된 미학을 작품에 담아 개념적인 의복을 표현해내는 샬라얀은 옷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낸다. 단순히 개성있는 옷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옷을 통해 신체의 정체성을 표상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옷은 문화적 맥락 안에서 신체와 관련된 기호에 따라 정체성이 구축되거나 재구축되는데, 샬라얀의 복식에서는 부분적인 디자인의 변형이나 기능보다는 서구 문명 속에 자리한 복식을 바라보는 눈 즉, 의복과 신체 간 또는 의복과 정체성 간의 해석이 근원적인 맥락이다<sup>21)</sup>. 샬라얀은 의복의 형태, 착용하는 방식을 통해 복식과 인간과의 새로운 해석,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는 1993년 재킷에 쇠의 출밥을 묻히고 옷이 부패하는 과정을 실험하면서 6주간 땅에 묻은 후 이를 파내어 'The Tangen Flow' 컬렉션에 발표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sup>22)</sup>. 1999년에는 'Echoform'에서 헤드레스트와 중첩된 치마단으로, 현대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과 속도를 표현해냈고 2000년에는 'Before minus Now'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는 Airplane dress로 기술의 진보성, 기계 환경에 지배된 생활을 보여주었다. 2001년에는 'Ventrioquy'에서

망치로 자신의 작품을 깨면서 유행의 일시성, 일회성, 덧없음을 표현하였다. 2003년에는 'Manifest Destiny'에서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지는 드레스를 통해 반전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샬라얀은 작품발표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듯이 첨단 기술을 패션쇼에 도입하여 미래적이면서 공연 예술적으로 패션과 기술을 통합시키며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시킴으로써, 그의 상상력의 결정체인 조형언어를 통하여 보는 이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전달한다.

## 2. 이중성에 의해 열린 구조

이중성에 의해 열린 구조를 지니는 복식은 형태와 더불어 이차적 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식을 말한다. 이는 신기술이 응용되어 여러 기능성이 부가된 복식을 뜻한다. 이러한 열린 구조의 대표적인 복식 형태의 예는 디지털 기능을 지닌 스마트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의복에 디지털 기술이 중첩되어 있는 복식이다. 기술적인 부분이 소품처럼 외장 되어 있거나 안으로 내장되어 있어 착용자의 선택에 의해 작동되기도 하고, 착용하면 저절로 의복에 내장된 기능에 의해 작동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로서 주로 개발하였으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금속사나 광섬유를 이용하여 디지털회로를 직물이나 기타 소재의 안으로 집어넣도록 디자인하여 기계적인 하드웨어가 보이지 않으면서<sup>23)</sup> 언제, 어느 때나 원하는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착용자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신체의 상태를 보고하는 기능도 가진다<sup>24)</sup>.

따라서 스마트 의복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간편화, 초소형화가 가능해진 미래 복식이며, 건강 및 복지측면에서 인간생활 전반에 편의를 줄 수 있고, 심미적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sup>25)</sup>.

휴대가 간편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인체와의 복이 융화되어 사용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복식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의복으로서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sup>26)</sup>. 기술의 힘으로 개발된 복식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오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행복) 개념을 복식에 실현시키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이성의 지배를 받아 적극적으로 살며 얻는 행복이라는 용어의 뜻처럼 공학적 기술이 편안한 복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덕목을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으며 덕목(Virtue, 그리스어로 아레테 Arete)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잠재된 능력을, 또는 기능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태적으로는 작아져 감추어지지만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제 기능이 발휘되어 정해진 대로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항상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 셔츠는 조지아 공대에서 개발한 Georgia Tech Wearable Motherboard (GTWN)를 센사텍스 (Sensatex)라는 회사에서 상용화한 것으로 POF (Plastic Optical Fiber)의 기능으로 심장 박동률, 체온, 호흡 등을 체크하며, 군대나 의학 분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sup>27)</sup>.

라이프 셔츠(Life Shirt)도 부착된 센서로 신진대사의 변화, 체온, 혈압이나 심장박동 등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더 나아가 병에 걸릴 가능성까지도 알아내어 실시간 의사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의에도 바이오센서가 들어 있어 수면 중에 체온과 땀의 양을 측정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방의 온도를 알려준다. 이렇게 스마트 복식은 건강의 유지, 관리와 치유를 돋는 역할까지도 의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서 란타넨(J. Rantanen) 등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20° ~ -50°C의 추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의복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의복에 부착된 센서는 착용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아내고 열과 습도를 감지하며, 모니터를 통해 심장 박동수를 알려준다. 만일 센서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데이터화되면서 착용자에게 소리와 진동의 알람으로 알리고 1분 이내에 착용자가 알람을 취소하지 않으면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위성 위치 추적시스템과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구조요원에게 연결 된다<sup>28)</sup>.

스마트 복식에는 이렇게 정보 교류 장치, 위치 확인 장치, 구급 장비 등 의복의 프로그램으로 착용자와 환경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판단하는데 때로는 착용자가 요요(Yo-yo)라고 불리는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서 이 시스템을 제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극복해야 할 점이 많으며, 극한 추위에서 생존을 돋기 위해 개발된 경우 CPU 보드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하는 점과 온도가 영하 10°C 이하에서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sup>29)</sup>.

필립스에서는 추워서 몸이 떨릴 때 열을 내주고 더울 때 식혀 주도록 고안된 띠를 개발<sup>30)</sup>하였으며 이 띠는 의복에 부착하여 신체 신호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며 체온을 조절하여 신체에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장치이다. 또한, 필립스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바일폰,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는 '노 키딩'(No Kidding)이라는 어린이용 스마트 의복을 개발하였으며 GPS, 모바일폰, 디지털 카메라가 의복에 달려있다.

일본의 파이오니아 회사(The Pioneer Corporation)에서는 의복의 소매에 넣는 스크린을 4년에 걸쳐 개발하여 샘플 재킷을 선보였다. 모든 각도에서 읽을 수 있으며 눈부신 햇빛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스크린은 몇 년 내에 상용화된다<sup>31)</sup>. 이 재킷은 패션디자이너 미치에 소네(Michie Sone)와 산업디자이너 나오카 하라사와(Naoki Harasawa)가 통합 디자인 개념으로 트렌드가 반영된 '입을 수 있는 개인 컴퓨터'를 만든 것으로 일본에서 미디어 패션으로 불리며 활발히 개척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의복에 어댑터, 밧데리 등의 모든 기계를 넣고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통합 구조의 복식으로, 화면, 이어폰,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수신기 등이 기능하는 통합 복식을 만들고자 한다<sup>32)</sup>. 스크린이 혁신적으로 얇고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여 옷의 소매나 밀단이나 핸드백에 응용될 수 있지만 화상이 최대 4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는 단점이 아직 남아있다.

MIT 공대 연구소의 토드 맥코버(Tod Machover)

교수 연구팀은 1992년 리바이스와 합작으로 의복에 전자 악기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 뮤지컬 재킷은 2000년 첨단의 “ICD+”로 탄생하였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 뮤지컬 재킷은 주머니 부분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어깨 부분에 들어간 직물로 된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음량은 소매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한다. 의복에 휴대폰, MP3, 소형 리모콘 이어폰이 내장되어 있다.

독일의 인피네온사에서 개발한 재킷에는 MP3 파일이 들어가 있고 소매에 키보드가 달려있다. 전기 장치들이 바로 직물에 바느질되어 있고 이를 장치의 제거 없이 세탁을 할 수 있으며, 2004년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끼를 내놓았다<sup>33)</sup>.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더욱 자연스러운 장치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 기술을 응용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커뮤니케이션 분야, 건강 보조 제품, 보안 산업에 이용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기술을 응용하여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제품을 특정 부위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사이보그(Cyborg)처럼 특수한 능력을 만들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공의 직선거리와 경로를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을 비주얼로 저장하는 컴퓨터를 눈에 부착한다. 이러한 첨단의 기술이 응용된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의 목표는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다<sup>34)</sup>.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료들은 의복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 완전히 자유로운 외관과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납작한 키보드나 컴퓨터 기기들이 유연하고 가벼우며 전선을 제거해도 정확히 기능함에 따라 접히거나 말려서 일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소품에 특별한 착용감 없이 사용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필름 센서로 반응하는 음악기구나 빛이 나는 장치가 의복에 들어가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며, 인간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사용된다<sup>35)</sup>.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중성에 의해

열린 복식은 발달된 기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정보를 처리하고 커뮤니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양방향적 특성을 지니며, 더욱 비물질화되며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연속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며 미디어가 결합되어 복합적이다<sup>36)</sup>.

### 3. 불연속성에 의해 열린 구조

불연속성은 복식이 두 가지나 그 이상의 형태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이 매개되는 개념이며 이때의 시간은 긴 세월이 아니라 형태나 기능이 변화하는 겨를, 틈, 사이 시간을 뜻한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주어진 자체의 형태 속에 뜻밖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이며 둘파구이기도 하며<sup>37)</sup>, 모든 형태의 운동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다<sup>38)</sup>. 디자이너들은 때로 이벤트적 성격의 컬렉션에서 변화하는 복식을 발표하기도 한다.

불연속성에 의해 열린 복식을 살펴보기 위한 복식에서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루엣과 디테일에 의한 형태의 변화, 복식 색채의 변화, 재질의 변화와 같이 모두 복식인 경우와 이와는 달리 복식에서 변화가 일어나 복식이 아닌 제품이나 환경으로 되는 경우이다. 실용적인 면이 주로 부각되고 복식 이외의 기능이 추가되며, 특히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창의적 독창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있을 때 복식에서의 불연속성이 이어지는 열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1) 실루엣과 디테일에 의한 변화

복식은 신체를 보호하거나 실용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표현에서도 중요한 기호의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 심리적 측면은 무척 중요하여서 때로는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가 불편하거나 다치는 경우까지 감수하는 복식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식의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기능이 바뀌지 않더라도, 실루엣이나 선, 색 등과 같이 미적 표현을 나타내는 복식의 디자인 요소가 변하는 경우도 열린 개념에 해당된다.

먼저 복식에서 실루엣과 내부 형태가 변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요소에 따라 형태와 색채, 재질이 바뀌는 사례가 있다. 우선 형태의 변화는 실루엣의 변화와 실루엣 내부 형태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실루엣의 변화에는 복식 길이가 달라지는 수직적 변화와, 복식 넓이가 달라지는 수평적 변화나 원형적 변화, 부분적 변화가 있다.

사람은 직립 자세를 가지므로 복식은 대부분 수직적으로 지각된다. 신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인간의 심리는 의복의 길이를 통해 표현되는데 조절한다. 대체로 신체가 드러나는 짧은 길이는 경쾌하고 활동적이며 스포티해 보이며, 긴 의복은 위엄을 가지며, 어른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준다<sup>39)</sup>.

복식의 수직적 길이를 변화시키는 예로는 재킷이나 스커트, 팬츠, 소매 등에 지퍼나 끈, 흑 등으로 조절하여 짧게 하거나 혹은 길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주로 복식에 부자재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지퍼는 기능성을 추가하면서 미적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현대 디자인에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현대 패션의 캐주얼화 경향과도 잘 맞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식의 폭의 확대는 활동에는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인체의 좌우 쪽으로 확대하여 납작한 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후·좌·우를 확대하면 원형적인 입체공간으로 변화된다. 소매를 확대하거나, 옆선에 커다란 포켓을 부착하는 경우도 같은 효과를 준다. 아네 뢰스텔(Anett Roestel)은 2004년 지퍼를 닫았을 때는 타이트 스커트가 지퍼를 열면 플레이스커트로 바뀌며, 확대된 면적에 의해 입체감과 우아함을 더해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sup>40)</sup>.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소매에 원통형의 플리츠를 부착하여 반으로 접어지면서 접시꽃 모양으로 변화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세이 미야케는 2000년 컬렉션에서 공기를 넣어 신체의 각 부분을 원통형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납작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의복의 실루엣 내부 형태를 변형하여 실루엣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복식의 이미지를 다르게 하기도 한다. 프라다에서 01/02 FW시즌의 가죽 후드

는 안이 양털로 되어 있는데, 후드가 필요 없을 때는 후드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지퍼를 완전히 열어 평면으로 어깨를 덮어주게 된다. 디테일이 변하는 경우는 네크라인, 포켓 등의 디테일과 트리밍에 의해 나타난다.

## 2) 복식에서 색채나 재질의 변화

복식의 색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색은 다른 디자인 요소보다 쉽게 인지되고 강렬하게 오래 기억 된다<sup>41)</sup>. 또한 재질이 주는 효과에 따라 복식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실의 굵기나 조직, 표면형태, 섬유 조성, 유연성에 따라 감성에 큰 차이가 생기며, 새로운 흥미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복식에 리버서블 소재, 특히 본딩(bonding) 소재 등을 사용하거나, 리무버블(removable), 디터쳐블(detachable) 디자인을 통해 색채나 재질을 변화시키는 외에, 최근에 신소재 기술을 통해 외부환경에 의해 색이 바뀌는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색을 변화시키고 있다. 섬유 결면의 색이 빛이나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 섬유나 크로믹 섬유가 있으며, 일본의 코마цу 세이렌(Komatsu-Seiren) 회사는 자외선을 받으면 발색하고 빛이 차단되면 색도 사라지는 자외선 감지 발색소재를 개발했다. 또한 물이 차단되는 경우 변색하는 직물도 있는데 채광 구슬과 함께 사용하여 젖으면 직물 자체는 투명해지고 채광 구슬(펄의 효과)이 발색하게 되며, 소리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직물<sup>42)</sup>도 개발 중에 있다. 최근 축광 섬유의 발달은 직물이 외부 에너지의 충전 없이도 8시간이나 스스로 빛을 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배터리를 통해서 빛을 내는 소재도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2001 S/S 컬렉션에서 알렉산در 허치코비치 (Alexandre Herchcovitch)는 소재 자체가 빛을 저장하는 무기물질을 가지고 빛을 축적했다가 어두우면 빛을 발하는 야광소재를 이용하여 낮에는 평범하게 비치는 얇은 소재의 환색 원피스로 보이지만 어두우면 형광색으로 변화되는 복식을 보여주었다.



〈사진 1〉 불연속성에 의한 열린 구조의 복식

### 3) 복식에서 타제품으로 변화

복식에 사이 시간이 들어가면 불연속적 구조가 나타나 형태나 목적,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변화하는데 특히 복식이 아닌 타제품이나 환경으로 변화할 때는 비약적인 변화가 생긴다. 형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복식일 때는 편안한 착용감이 있어야 하고, 타 도구일 때는 정확히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인 디자이너 이주미 코하마(Izumi Kohama)와 카비에 몰린(Xavier Moulin)은 홈웨어(Home-wear)를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하여 착용할 수 있는 대상 또는 가구(Wearable Object/Furniture)로 여기고, 의복이나 소품처럼 몸에 잘 맞으면서도 가구로서의 기능과 편리함을 생활에 줄 수 있도록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가구나 기구 등도 의복처럼 몸에 지낼 수 있다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있는 곳이 집처럼 편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식에 물리적 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정서에도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그들이 디자인한 ‘홈웨어 스툴팬츠’(Homewear Stoolpants)는 팬츠에 바람을 짊어넣는 경우 쿠션이 생겨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패디백(Padybag)이라는 가방은 펼쳐지는 경우 완전한 평면 깔개가 되어 야외나 의자위에 펼쳐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터키 출신 디자이너 후세인 살라얀은 1999년에 발표한 에어메일 드레스(Air Mail Dress)는 필름과 종이 섬유의 장점을 살린 타이벡(Tyvek)이라는 내구성이 좋으며 가볍고 유연한 재질로 제작되었다. 후세인 살라얀은 2000년 AW컬렉션 ‘After Words’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Furniture wear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의자 네 개와 테이블 한 개가 놓인 장

소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형태로 진행되었다. 모델이 리버서블 소재로된 회색 의자 커버를 벗겨서 뒤집으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변화하고, 의자는 접으면 여행 가방으로 변화하며, 나무로 제작된 테이블은 중심으로 끌어올리면 층을 이루는 스커트로 변화하는데 특히 스커트의 혀리부분은 가죽으로 제작되어 나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했다.

1994년에 루시 오르타(Lucy Orta)가 발표한 리퓨즈 웨어(refuge wear)와 케렉티브 웨어(collective wear)는 외출복이 일시적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디자인이다. 그녀가 몸의 건축으로 표현한 이 디자인은 개인적인 휴대 용품처럼 스트레스가 없는 일시적 주거 공간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사회 환경에 잘 대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갑작스런 지진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돋기 위해 시도된 디자인지만 이 디자인은 유목민적 삶을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도 적합하다. 케렉티브 웨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낮 동안에는 네 사람이 각각 입고 다니는 판초로 기능하고, 밤에는 각 부분이 연결되어 텐트가 되어 쉼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착용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며, 물리적인 면에서 볼 때도 적은 열에너지로 여러 인원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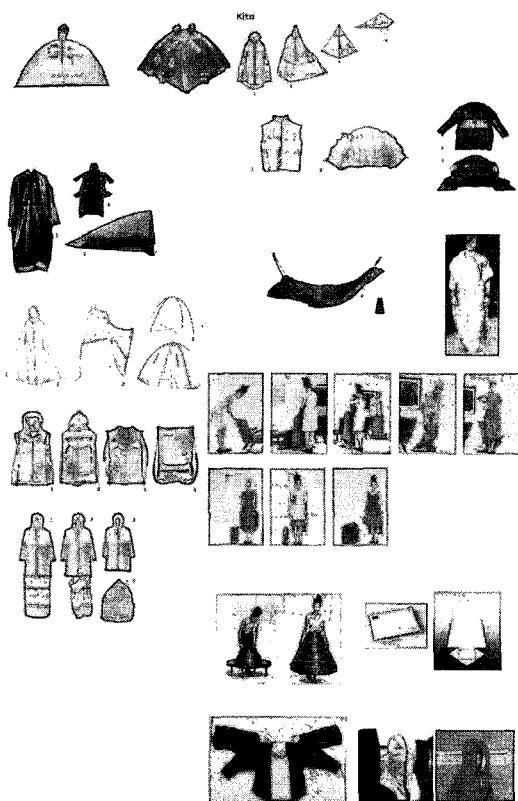
디자이너 제프 그리핀(Jeff Griffin)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만들었다. 베어 스킨 러그(Bear Skin Rug)이라고 불리는 이 재킷은 파카로도 되고 솔기를 따라 달린 지퍼를 닫지 않으면 판초도 될 수 있으며, 소매 길이의 방향으로 달려있는 지퍼를 열면 완전한 평면으로 러그가 된다. 이 러그에는 충전 기능이 있어서 필요할 경우 보온 효과를 제공한다. 그리핀이 또 다른 형태로 의복의 보호 기능을 높인 포드 코트(Pod Coat)는 통기성 있는 천연 소재를 사용하며, 앞면 중앙에 있는 지퍼를 이용하는 경우, 코쿤 형태의 침낭(슬리핑백)으로 변하게 된다. 샘소나이트 블랙라벨은 여행복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01년 S/S시즌에는 필요에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의미적 열린 구조

〈표 1〉 복식에 표현된 의미적 열린 구조

	내용	구분	디자이너 (제작자, 브랜드)	표현 형태 (제품)
미래지향성	시대, 문화적 상황과 연관되어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함	동양방식과 서양의복, 기술과 휴먼 관념을 통합시킴	이세이 미야케	APOC: 소비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 Pleats Please: 입는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패션
		기존 관념에 구애됨 없이 패션에 새로운 질서를 추구함	장 플고티에	앤드로지너스룩, 액티브스포츠웨어, 속옷의 겹옷화, 미스매치코디 네이션
		개념, 철학, 예술, 기술이 복식으로 통합됨	후세인 살라얀	Echoform, Before minus Now, Ventriquity, Manifest Destiny
		신기술이 응용되어 디지털	센사텍스	Smart Shirt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란타네	Smart Clothing Prototype
		복식	펠립스	No Kidding
		하나의 체계, 하나의 형태 또는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비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생기며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사이 시간에	이세이 미야케	파이오니아사
		형태 변화	인페	스크린 재킷
			네온	조깅 조끼, Mp3재킷
이중성	형태와 동시에 이중적 기능을 가짐	신기술이 응용되어 디지털	아네 뢰스텔	지퍼로 변형되는 스커트
			이세이 미야케	공기주입 스커트
		색채 변화	알렉산드르 허치 코비치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원피스
			이주미 코하마 등	Wearable Object/Furniture
		타제품으로 변화	후세인 살라얀	Air mail Dress, After word: Furniture wear
			Lucy Orta	Refuge wear, Collective wear
			Jeff	Bear Skin Rug/

Griffin	Parka, Pod Coat
Samsonite Black Label	Detachable Bag Pocket Pants
Chanel	SleepingBag/Duver-Coat
C.P.com pany	Parka/AirMatress, Waist Coat/Coution, Jacket/Armchair, Hooded Cloak/Hammock, Pancho/Tent, Jacket/Sleeping Bag, Vest/Shoulder Pack, Pancho/Kite



〈사진 2〉 불연속성에 의한 열린 구조의 복식

따라 지퍼를 사용하여 바지와 연결할 수 있는 스트레치 소재로 만든 디태처블 백(Detachable bag pocket pants)을 제안했다. 샤넬은 2001 F/W 시즌에 모든 외관선이 완전히 잡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되어 팔과 다리를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 잡그면 완벽한 슬리핑백으로 변화하는 오리털 코트를 선보였다. 이는 샤넬의 전통을 이어가는 칼 라거펠트가 극한 환경에서도 체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 것으로 복식의 변화가 제품으로 연결되는 열린 구조의 복식을 제안한 것이다. C.P.Company에서도 2000년, 2001년 발표한 연이은 제품들은 복식으로부터 각각 에어 매트리스, 소파, 해먹, 텐트, 슬리핑백, 솔더백, 연 등의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열린 구조의 의미적 개념이 복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열린 구조를 가진 복식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결과 의미적으로 열린 구조를 가진 복식은 열린 구조의 개념적 해석에 따라 미래지향성, 이중성, 불연속성에 의해 열린 복식으로 구분되었다.

미래 지향성을 지닌 열린 구조 복식은 새로운 내용이나 해석에 의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고, 특히 1980년대부터 미래지향성의 열린 개념을 보여주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내용적 의미의 미래지향성을 규명하였다.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은 기술과 휴머니즘, 동양 방식과 서양 의복을 통합시켰으며 소비자에 의해 완성되는 패션을 실현하였다. 장 폴 고티에의 작품에서는 전위적인 해석을 통하여 패션에 새로운 질서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서는 개념, 철학, 기술을 통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조형언어로서의 패션으로 표현함으로써 경험을 확장시키고 복식의 새로운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이중성을 지닌 열린 구조 복식은 형태에 통시간적인 이차적인 기능이 부가된 복식이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마트 복식을 들 수 있다. 스마트 복식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미래 복식이며 인간의 건강, 복지, 교육,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편의를 줄 수 있고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연속성을 지닌 열린 구조 복식은 하나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비약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의 복식으로, 사이 시간이 들어가 불연속적 구조가 나타나고 형태적 기능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의 변화, 색채·재질의 변화, 복식에서 타제품으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복식에서 타제품으로 변화하면서 복식의 기능과 가치가 비약적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열림' 개념의 정의에서 열은 열린 구조 개념을 복식에 적용하여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서 각각의 스타일로 나타나는 복식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통합적 시각으로 복식을 바라보아 복식의 가치영역과 연구 영역을 넓히는데 있다.

#### 참고문헌

- 1)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1995), pp. 1607-1608.
- 2) 세계 철학 대사전 (1992). 서울: 교육출판 공사, pp. 772-773.
- 3) Umberto Eco, 조형준 옮김 (1995). 열린 예술작품: 카오스모스의 시학. 서울: 새물결, pp. 111-149.
- 4)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1995). 24권, pp. 13961-13962.
- 5) Michael Hauskeller, 김현희 역. (2002). 예술 앞에 선 철학자, 서울: 이론과 실천, pp. 159-163.
- 6) 김상숙 (2001). 시각예술 문화읽기. 서울: 재원, pp. 10-11.
- 7) 신방훈 (2001). 시각예술과 언어철학. 서울: 생각의 나무, pp. 27-42.
- 8) 노은주, 이영수 (2003). 현대건축에 있어서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23(2), pp. 725-728.
- 9) 세계 철학 대사전 (1992). 앞의 책, p. 449.
- 10) 김치수 (1989). 바르트의 기호학-기호학적 모험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24(24), pp. 69-75.
- 11) 박명희 (1990). 이세이미야케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pp. 9-20.
- 12) 김민자 (1986).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 의류학회지, 10(1), p. 69.
- 13)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미야케의 패션 철학을

-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 163-164.
- 14) 김미선, 배수정 (2003). 앞의 책, p. 163.
  - 15) 윤은재 (2003). 일본인 디자이너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1(8), p. 187.
  - 16) 정성혜 (1995). 일본 패션의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198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25(0), p. 29.
  - 17) 주명희 (1997). Jean Paul Gaultier의 의상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0), p. 160.
  - 18) 구인숙 (1995). 앞의 책, pp. 3-6.
  - 19) 최영옥 (2001) 장폴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 경향. 복식문화연구, 9(4), pp. 583-584.
  - 20) 윤은재 (2003). 앞의 글, p. 194.
  - 21) 김혜영 (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복식, 50(4), pp. 5-20.
  - 22) 이민정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04-105.
  - 23) 신혜원 외 (2003). 의복과 현대 사회. 서울: 신정, pp. 281-282.
  - 24) J. Rantanen et. al. (2002). *Smart Clothing Prototype for the Arctic Environment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pp. 3-16.
  - 25) 장애란, 현명관 (2003). 디지털 의복에 표현된 디지털 패러다임. 복식, 53(4), p. 32.
  - 26) 조길수 (2000). 디지털 의복 섬유. 기술과 산업, 4(1/2), pp. 148-157.
  - 27) retrieved May 26, 2004 from <http://studentweb.uwstout.ut.edu/rustonga/Current%20Status.htm>
  - 28) 신혜원 외 (2003). 앞의 책, pp. 283-286.
  - 29) J. Rantanen et. al. (2002). 앞의 책, pp. 3-16.
  - 30) retrieved May 26, 2004 from <http://radio.weblogs.com/0105910/2003/10/13.html>
  - 31) retrieved May 20, 2004 from <http://digitaldeliverance.manilasites.com/2003/06/11>
  - 32) retrieved May 25, 2004 from [http://itmatters.com.ph/news/news\\_12102001.html](http://itmatters.com.ph/news/news_12102001.html)
  - 33) retrieved May 20, 2004 from <http://admin.urel.washington.edu>
  - 34) Steve Mann (1996). 'Smart Clothing': Wearable Multimedia Computing and 'Personal Imaging' to restore the Technological Balance between People and Their Environments. *ACM 0-89791-871-1/96/11*, pp. 163-174.
  - 35) Maggie Orth, Rehmi Post, Emily Cooper (1998). Fabric Computer Interfaces. *ACM 1-58113-028-7*, pp. 331-332.
  - 36) 장애란, 현명관 (2003). 앞의 책, pp. 31-47.
  - 37) Michael Hauskeller, 김현희 역 (2002). 앞의 책, pp. 149-154.
  - 38) 철학 대 사전 (198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서울: 동녘, p. 576.
  - 39) 김영자. 앞의 책, p. 155.
  - 40) 김영자. 앞의 책, pp. 156-157.
  - 41) 오현정 (1989). 의복의 미적 가치 평가.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2) 류덕한, 이옥자, 홍민규 (2000). 어페럴 소재. 서울: 교문사, pp. 310-311.
  - 43) retrieved May 26, 2004 from [http://studioorta.free.fr/lucy\\_orta.html](http://studioorta.free.fr/lucy_orta.html)